

# 광주 일자리 청신호?...8월 ‘반짝’ 성장

## 사랑방 구인구직, 올 1~8월 구인광고 현황 분석

### 전년대비 구인시장 위축됐지만 8월 7.5% 증가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었던 광주 지역 고용시장이 8월 들어 반짝 성장세를 보였다.

생산직을 포함한 전반적인 구인 규모가 전년과 비슷하게 회복되면서 향후 구인시장 흐름에 청신호가 계속 이어질지 주목된다.

23일 광주·전남 취업포털 사랑방구인구직(job.sarangbang.com)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광주지역 구인광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게재 건수는 5만11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9401건) 대비 1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시장이 줄어들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휴업장 증가 등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고용 상황은 더욱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얼어붙었던 고용시장은 8월 들어 전년과 비슷한 흐름을 회복했다. 생산직을 포함해 고용시장 전반이 회

복세를 보인데 따라 향후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라 시장 규모 확대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올해 광주지역 8월 구인광고 게재 건수는 6만4883건으로 지난해 동기(6만350건)대비 7.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생산직이 주된 증가를 보였다. 올해 생산직 8월 한 달간 게재건수는 7037건으로 지난해 대비 32.7% 증가했다.

지난해 생산직 8월 게재건수가 5301건인 것과 비교했을 때 1700건 가량 증가한 셈이다.

업종별로는 식품생산직 업종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올해 8월 식품생산직은 전년 동기 대비 37.7%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코로나19여파 장기화로 혼잡시장 활성화와 집에서 끼

니를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배달음식 수요 증가 등이 식품생산 구인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장마와 태풍, 폭우 피해 등으로 그간 공고를 내지 못했던 일자리가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풀리면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랑방구인구직 관계자는 “배달음식과 간편식 소비 등 집밥 문화 확산에 따라 가공식품 생산공장의 인력 채용 규모가 늘어나면서 생산직 전반의 고용시장 활성화를 견인한 측면이 었 보인다”며 “지역사회 코로나19 이슈가 잠잠해질 무렵 채용공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코로나19 방역이 잘 이뤄진다면 고용시장 활성화를 지켜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민경기자



### ‘전화 1통으로 출입 기록 간편하게’

23일 오전 광주 북구청 청사 중앙 출입구에서 민원인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된 ‘안심콜’ 청사 출입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청사 출입 시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발신자·시간 등 통화 내역이 전산 서버에 남는다. 통화 내역은 4주간 보관된 뒤 폐기된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 전남 농수특산물·가공품 ‘도지사 품질인증’ 신청하세요

### 소비자 신뢰 확보·제품 경쟁력 ↑ 농산물·음료·수산물 등 8종 473개

전남도는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과 가공제품에 대한 도지사 품질인증 신청을 접수한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청정지역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

뢰를 확보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다음달 16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 품목은 도내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이다. 농산물, 음료, 주류, 축산, 수산 등 8종 473개 품목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거주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수특산물 제조업체와 기존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로 신규 인증을 희망하거나 인증기간이 만료돼 연장이 필요한 업체다.

전남도는 품질인증 신청 품목에 대해 제품 안전성 검사를 하고 현지실사를 거친 후 12월 중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에서 도지사 품질 인증마크 사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도지사 품질인증 사용허가를 받으면 포장디자인 제작비(업체당 1000만원)와 자가 품질 검사비(업체당 25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라도 온라인 소평몰인 ‘남도장터’에 입점할 수 있다.

김정환기자

## “법인택시 기사들도

### 100만원 지원 환영”

#### 소병철 의원, 민생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이번 4차 추경안 통과로 법인택시 기사님들도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되어,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매출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법인택시 업계에 추석을 앞두고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4차 추경안에는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총 81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논란이 해소되었다.

소 의원은 지난 11일 순천을 찾아 민생경제회복 행보의 일환으로 가진 순천지역 택시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법인택시 기사들은 소 의원에게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개인택시 기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법인택시 기사들의 좌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 법인택시 기사들도 같은 지원을 받게 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다.

소 의원은 “순천의 법인택시 기사님들께서 건의해주신 대로 개인택시와 같은 금액을 지원 받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이번 추경안 통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순천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 동구 “배추왕 선발대회에 도전하세요”

광주 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바깥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내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구 선인종합재가센터가 주관하는 ‘배추왕 선발대회’ 사업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 100여 명이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신체활동 저하에 따른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우울감 해소를 통한 자존감 및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어르신들에게 ‘배추 키우기 키트’를 제공한 뒤 생활지원사가 주1회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함께 배추를 가꾸고 수확한다. 동구는 수확한 배추를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배추왕 선발대회에 출품하고, 마을사랑채 공유부엌에서 김장을 담가 장애인과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 서구, 비대면 온라인교육 역량강화 수강생 모집

광주 서구는 언택트시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에 마련된 교육은 코로나19 이후의 환경변화에 따라 평생교육 관계자 및 강사들도 온라인교육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마련됐다.

따라서, 이번 과정은 ▲프로그램 소개 및 간단한 조작법 익히기 ▲실시간 화상수업도구 줌(ZOOM)활용 1, Ⅱ ▲밴드라이브, 유튜브 채널 개설, 컷 설정 및 편집 등 강의를 진행하는 주체에 맞춰 구성됐다.

### 남구, ‘내년도 신규·역점사업 발굴’ 시동 걸었다

광주 남구는 지역사회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도 신규·역점 시책사업 발굴에 나섰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 ‘2021년 신규·역점 시책 및 남구형 한국판 뉴딜사업 발굴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내년도 신규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 35개 부서에서 발굴한 신규사업 133건과 역점사업 105건 등 총 238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규 시책사업은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으며, 민선 7기 구청 슬로건인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남구’를 위한 새로운 정책사업 발굴 내용도 포함됐다.

### 북구, ‘2020 북구민의 날’ 랜선 기념행사 개최

광주 북구가 구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기념행사를 갖는다.

북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구민상 수상자, 시·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북구민의 날’ 랜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개청 40년을 맞은 북구는 지난해 주민 대상 온라인 선호도 조사, 추진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북구 설치령 공포일’인 9월 26일을 ‘북구민의 날’로 정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28개동 주민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 광산구, ‘건강 정보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

23일 광주 광산구가, 행정안전부 ‘2020년 공공데이터 뉴딜사업’ 기업 매칭 분야에 선정된 공모 사업 실행을 위해, 구청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생크로비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광산형 건강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오늘 업무협약으로 광산구가 생산하는 보건 의료 데이터를 분석·시각화해 시민 건강 증진에 이용하는 사업의 첫 삽을 떴다”라며 “코로나 일상 시대에 높아지는 시민 건강 수요를 충족하고, 시민 면역력 증진 정책 수립 등에 공공보건 의료 정보가 건요하게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산구와 두 협약기관은, 구에서 수집·생산하는 고령인구비율·출산율 등 인구통계 정보, 흡연율·음주율 등 건강행태 정보, 병원·약국 분포 등 의료자원 정보 등 공공보건 의료 데이터를 분석·가공해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임형택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에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5분위 240,833원

4분위 125,531원

3분위 79,147원

2분위 48,103원

1분위 26,697원

← 고소득층

→ 저소득층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서울시 129

한국건강관리협회

Korea Health Management Association

고객센터 1577-1000